

### 달라이라마의 방몽과 몽·중의 갈등

이평래 외래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과

#### ■ 주요 내용

- 티베트의 지도자 제14대 달라이라마가 11월 18일~23일 몽골을 방문함. 방문 기간 중 달라이라마는 법회, 국제학술회, 몽골 대학생들과의 대화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함.
- 달라이라마의 방몽은 몽·중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짐. 즉 그를 초청한 간단테그칠렌 사원 측과 몽골 외교부는 달라이라마의 방몽을 순수 종교행사로 강조한 반면, 중국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그의 방몽을 강력히 비난하고 몽골에 대한 외교 및 경제적 압박을 가함.
- 갑작스러운 달라이라마의 방몽으로 인한 몽·중의 외교적 마찰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몽골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mailto: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 달라이라마의 몽골 방문

## ☒ 5년 만에 이루어진 달라이라마의 몽골 방문

- 티베트의 지도자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지난 11월 18~23일 몽골을 방문함.
  - 2011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그의 방문은 몽골 불교의 본산인 간단테그칠렌 (Gandantegchilen) 사원, 불교 관련 시민단체, 신도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짐.
- 달라이라마는 11월 19일 오후, 간단테 그칠렌 사원에서 행해진 몽골 국민에 대한 인사, 11월 20일 UB Palace에서 진행된 법회, 11월 21일에 개최된 ‘과학과 불교’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11월 22일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참석, 몽골 대학생들과의 대화 등의 공식일정을 소화함.

## ☒ 달라이라마와 몽골의 인연

- 달라이라마는 몽골족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음.
  - 1578년 몽골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알탄 칸(Altan Khan)이 티베트의 고승 소남 가초 (Sonam Gyatso)를 중국 서부 칭하이(青海) 성의 칭하이 호반으로 초청하여 불교에 귀의하고 그에게 ‘달라이라마(Dalai lama)’라는 칭호를 수여함.
  - 달라이는 몽골어로 ‘바다’라는 뜻으로, 소남 가초의 ‘가초’를 몽골어로 번역한 말이고, 라마는 티베트어로 ‘스승’을 뜻함.
- 소남 가초가 타계한 자신의 두 스승을 1대와 2대 달라이라마로 추존했기 때문에 그가 제3대 달라이라마가 됨.
  - 그 후로 달라이라마의 계보가 현재의 14대까지 이어짐.
- 알칸 탄이 불교에 귀의한 후 몽골 귀족들과 제3대 달라이라마 등 티베트 불교(속칭 라마교) 교단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6세기 말 이후 불과 1~2세기 만에 몽골 전역에 불교가 전해졌고, 몽골은 독실한 불교국가로 변모함.
  - 그 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몽골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불교의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됨.
  - 현재 몽골국 인구의 약 60% 정도가 독실한 불교도일 만큼 몽골은 티베트 외 지역에서 티베트 불교 교세가 가장 번창한 곳으로 평가됨.
- 이러한 인연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사회주의 시절인 1979년 처음 몽골을 방문한 이후, 1982년,

1991년, 1994년, 1995년, 2002년, 2006년, 2011년 등 모두 여덟 차례 몽골을 방문하였으며, 이번  
에 아홉 번째로 몽골을 찾음.

## 2 달라이라마의 방문은 종교 행사인가? 정치 행사인가?

### ☒ 몽골 측은 이번 달라이라마의 방문이 순수한 종교 행사임을 강조함.

- 방문 하루 전인 11월 17일, 초청기관인 간단테그칠렌 사원 비서실의 다와수렝(S. Davaasüren)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방문 일정과 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방문이 ‘순수한 종교 행사<sup>1)</sup>’임을 강조함.
- 달라이라마의 몽골 도착 당일인 11월 18일에는 간단테그칠렌 사원의 언론홍보실장 오드가리드(J. Odgarid) 스님이 브리핑을 통하여 이번 방문은 “정치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순수 종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거듭 강조함.
  - 같은 날 멩흐-오르길(Ts. Mönkh-Orgil) 외교부 장관 역시 “제14대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문은 몽골 정부와는 상관없는 일”<sup>2)</sup>임을 힘주어 말함.
- 달라이라마가 한창 방문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11월 21일에도 간단테그칠렌 사원의 초이잠츠(D. Chojamts) 주지 스님이 나서 “몽골 인구의 60%가 불교를 믿고 있고, 달라이라마는 몽골에 와서 정치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하여 사부대중(四部大衆)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설교할 것”<sup>3)</sup>임을 강조함.

### ☒ 그러나 중국 측은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정치적 행사로 규정함.

-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몽골 방문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중국과 몽골의 관계가 틀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방문 당일인 11월 18일 중국 외교부의 경샹(耿爽) 대변인은 “달라이라마는 종교의 이름 아래 티베트를 조국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정치 망명자”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몽골 측에 양국의 우호 관계를 존중하고, 티베트 문제에 관한 (공식적) 입장에 충실하고, 달라이라마와 그의 무리의 몽골

1) <http://www.news.mn/r/317693>, лай ламын айлчлал улс төрөөс ангид гэж мэдэгдэв(2016년 12월 2일 검색).  
 2) Mongoliin medee 2면, 2016.11.21.일 자.  
 3) <http://www.montsame.mn/>, Д.Чойжамц: Далай багш Монголд морилохдоо улс төр хийдэггүй(2016년 12월 2일 검색).

방문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sup>4)</sup>고 경고함.

- 중국 외교부는 20일에도 경창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몽골이 중국의 거듭된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달라이라마를 초청했다”고 불만을 표함.
  - 더불어 몽골 측이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할 것”과 “이번 방문이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을 없앴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촉구함.<sup>5)</sup>
- 중국 외교부는 달라이라마가 출국한 11월 23일에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달라이라마의 몽골 방문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함.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허락한 몽골 측의 잘못된 정책은 중·몽의 정치관계에 틈이 생기게 하고, 양측의 협력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발표함.
  - 더불어 “따라서 중국은 몽골 측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심사를 존중하고 잘못된 행위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할 조치를 취하고, 중·몽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촉구한다”<sup>6)</sup>고 덧붙였다.

## ☒ 중국 측의 외교적 보복 조치

- 중국 정부는 몽골 외교부를 통해 양국 간에 계획된 정부 간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함.
- 이에 따라 2016년 11월 23~25일로 예정된 양국 의원들의 회의가 취소됨.
  - 해당 회의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양국 의회 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그동안 양국의 주요 현안을 조정해 왔음.
- 2016년 11월 28~29일로 예정된 후렐수흐(U. Khurelsükh) 부총리의 방중이 취소되었음.
  - 이 방문에서 부총리는 양국 사이에 논의 중인 42억 달러의 장기저리 차관, 몽골 최대 석탄광인 타왕톨고이(Tavan tolgoi) 광산의 철도 등 주요 문제를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
- 2016년 12월 5일로 예정된 몽골 외교부 장관의 방중이 취소됨.
- 본 방문에서는 부총리의 방중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초에 있을 몽골 총리의 방중을 위한 사전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음.
- 2016년 12월 5~7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몽골 교통발전부장관, 중국과 러시아의 교통부

4) <http://www.ikon.mn/n/vm1>, Хятад улс Далай ламын айлчлалыг хориглохыг Монголоос шаарджээ (2016년 12월 2일 검색).

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07905>, 中, 달라이라마 몽골 방문에 '발끈'...양국관계 경색될 듯(2016년 12월 3일 검색).

6) <http://olloo.mn/n/36107.html>, БНХАУ-ын талаас Далай ламын айлчлал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нд сэв суулгасан гэж мэдэгдэв (2016년 12월 2일 검색).

장관 회담이 취소됨.

- 본 회담에서 세 나라의 장관은 3국 간 교통 운송 관련 3국 협정에 서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

## ☒ 중국, 몽골의 석탄과 구리에 대한 수수료 인상

- 중국 정부는 11월 22일 결의문에 의해 12월 1일부터 몽골의 대중국 광물 수출품에 대한 수수료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된다고 발표함.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석탄 1톤당 8위안(한화 약 1,349원), 국경반입 차량 1대당 10위안(한화 약 1,686원), 구리 등의 금속은 1톤당 가격이 1만 위안(한화 약 168만6,400원)을 초과한 경우, 수출가격의 0.2%에 해당하는 수수료(거의 세금 수준)를 징수하게 됨.
  - 간츠모드(Gantsmod) 등 모든 몽·중 국경검문소 통관에서 이를 시행하고, 그 수입은 해당 국경 검문소의 서비스와 시설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기존에 간츠모드 등 몽·중 국경검문소 통관 차량에 부과되었던 수수료는 양국의 협의에 의해 면제되고, 기타 수수료 또한 납부하지 않음.<sup>7)</sup>

## 3 평가와 전망

### ☒ 과거 달라이라마의 몽골 방문과 이번 방문에서 보듯 수많은 몽골인이 달라이라마를 존경하고,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일부 몽골인들은 그가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겨울에 갑자기 몽골에 온 이유를 의아하게 여기고 있음.
  - 특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중국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그의 방문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음.
- 한 평론가는 달라이라마의 방문 이후 상기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그가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을 에둘러 비판함.<sup>8)</sup>
-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달라이라마의 방문은 그 자체가 정치 행위라고 전제한 다음, 이를 허락한 것은 정치인들의 내부 갈등과 권력투쟁 때문이라고 주장함.
  -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함.<sup>9)</sup>

7) <http://www.ikon.mn/n/vyz>, Хятад Монголтой хиллэдэг БҮХ боомтод хураамж н огдуулахаар шийдвэрлэжээ(2016년 12월 3일 검색).

8) <http://www.ub.life/economy/592>, Далай лам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аар тогложихо од явсан уу?(2016년 12월 3일).

- 다른 전문가들은 몽·중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세력이 이번 달라이라마의 방몽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그 세력으로 직접 미국을 지목함.<sup>10)</sup>

**☐ 중국은 지난 2006년 8월 달라이라마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에도 양국 간 철도운행 중단, 항공노선 폐쇄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함.**

- 이로 미뤄보면 중국이 이번에도 몽골에 직·간접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음.
- 보복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몽골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방몽을 승인한 것은 보복으로 인한 손실보다는 그를 존중하는 몽골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한 결과임.
- 그러나 세 차례의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 양국 외교행사의 전면적인 취소, 수출 광물자원에 대한 전격적인 수수료 인상에서 보듯 중국 정부의 보복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됨.
- 특히 최근 몽골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주저앉으면서 42억 달러의 장기저리 차관이 한참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달라이라마의 방몽과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및 제재조치는 몽골의 경제 회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몽골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그 수준도 역대 최고급으로 끌어올려 유사한 문제에 대한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중국의 한 전문가<sup>11)</sup>의 지적처럼 이번 달라이라마의 방몽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양국은 국가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 몽골은 값싼 광물자원의 공급처이자, 북한, 한국, 미국, 일본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임.
  - 몽골의 입장에서 중국은 제1위의 교역국이자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임.

9) <http://sonin.mn/news/politics-economy/71884>, Далай ламын гэнэтийн айлчлалын цаана юу байна вэ? (2016년 12월 3일 검색).

10) <http://sonin.mn/blog/bayarkhuu/71778>, Т.Баярхүү: Хятадаас зээл авах МАН-ын төлөвлөгөө нуран унасан (2016년 12월 2일 검색).

11)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19135.shtml>, Dalai Lama visit may chill Sino-Mongolian ties but business will go on: expert (2016년 12월 3일).

## EMERiCs

## 출처

-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19135.shtml>, Dalai Lama visit may chill Sino-Mongolian ties but business will go on: expert(2016년 12월 3일).
- <http://sonin.mn/blog/bayarkhuu/71778>, Т.Баярхүү: Хятадаас зээл авах МАН-ын төлөвлөгөө нуран унасан(2016년 12월 2일 검색).
- <http://sonin.mn/news/politics-economy/71884>, Далай ламын гэнэтийн айлчлалын цаана юу байна вэ?(2016년 12월 3일 검색).
- <http://www.ub.life/economy/592>, Далай лам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аар тогложихоод явсан уу?(2016년 12월 3일).
- <http://www.ikon.mn/n/vyz>, Хятад Монголтой хиллэдэг БҮХ боомтод хураамж ногдуулахаар шийдвэрлэжээ(2016년 12월 3일 검색).
- <http://olloo.mn/n/36107.html>, БНХАУ-ын талаас Далай ламын айлчлал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нд сэв суулгасан гэж мэдэгдэв(2016년 12월 2일 검색).
- <http://www.news.mn/r/317693>, лай ламын айлчлал улс төрөөс ангид гэж мэдэгдэв(2016년 12월 2일 검색).
- <http://www.montsame.mn/>, Д.Чойжамц: Далай багш Монголд морилохдоо улс төр хийдэггүй(2016년 12월 2일 검색).
- <http://www.ikon.mn/n/vm1>, Хятад улс Далай ламын айлчлалыг хориглохыг Монголоос шаарджээ(2016년 12월 2일 검색).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07905>, 中, 달라이라마 몽골 방문에 '발끈'... 양국관계 경색될 듯(2016년 12월 3일 검색).
- Mongoliin medee 2면, 2016.11.21.일자.